

공공 부문 혁신과 감사 정책의 방향

- 출처 : 한경미래니엄포럼
- 일시 : 2006년 1월 26일
- 연사 : 전윤철 감사원장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밀레니엄의 유래

전윤철 감사원장 : 오늘 경술년 첫 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한국경제 신문사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과 이 밀레니엄 포럼의 회원이신 여러분야에 걸쳐서 유명하시 분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경제와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곧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만 6년 전에 탄생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이 먼 훗날 빠를수록 좋겠지만 다보스 포럼과 같은 목적인, 무게가 있는 포럼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또 다보스 포럼 정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후원과 격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을 이끌어 가는 분들은 그런 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니까 제가 경제 부처 장관 시절에 두 세 번 나와서 이런 대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경제부처의 직원으로써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직접 간접으로 많은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공직 사회의 선배도 있고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도 있고, 언젠가 한번 어느 광고주대특강에서 학사 위에 석사 있고 석사 위에 박사 있고 박사 위에 육사 위에 육사 위에 육사 위에 육사 위